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20

Website: voice.kumcabq.com



Photo by Seokhoon Kim

CONTENTS

한인회소식 한인 여러분!! 한인회장 민명희:2	신앙생활 기도문 힌은영 : 13
미 대선소식 2020대선 개표 진행중 : 3	지역소식 이찌반 일본식당 리모델 완료 :14
지역소식 뉴멕시코 상하원 의원선거 : 4	국내소식 신임 배렛 연방판사 : 14
지역소식 산타페 광장 기념비 : 4	수필 아름다운 사람들 이정길 :15
한인사회 한인 미 하원의원 줄줄이 당선 :5	칼럼 우리가 주께 범죄 나정용: 16
지역소식 김숙희민화전시회 : 6	교회소식 일년을 되돌아 보며 윤태자 : 16
외국소식 이스라엘 아랍국가 수교협정: 6	칼럼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사의 달 김기천 : 17
지역소식 차기한인회장/주지사명령/백신 :7	수필 믿음이 길이다 나정자:18
한국학교소식 한국학교소식 : 8	시 분열 산유/레베카김:18
한국학교소식 통일한국을 꿈꾸며 한준희 : 9	수필 한국어 과거 현재와 미래 한승우:19
지역소식 상속세미나: 9	수필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대추김준호 :21
광고 나의 재정 상황 괜찮은가? 이한주 :10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1) 이상목:22
지역소식 Asahi Express 식당 : 11	선교 피지 선교사의 서신 이성일 :23
지역소식 코원소식 박광중: 12	온라인 독자 온라인 광야의 소리 독자 :26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명희입니다. 제18대 한인회를 한국인의 위격을 높이고 뉴멕시코 사회의 파트너 코리아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차세대를 위한 원조석이 되는 목적을 갖고 희망차게 시작한 것이 얼마 전 일 같으나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나 앞으로 한 달 남짓 남겨둔 임기 기간을 인식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위한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한인회가 시도했던 몇 가지 특별 이벤트를 회고하게 됩니다. 작년 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로 한국전통예술단을 초청하여 배뱅이굿을 공연함으로 이곳 뉴멕시코주민에게 전통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고 또 저희 한인들이 있고 살았던 우리의 전통민요와 고유 무용을 함께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백규식장노님의 선창으로 이곳 뉴멕시코 주민들과 함께 Keller Hall, UNM Collage of Fine Arts 에서 우렁차게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작년 11월 16일 역대 한인회의 전통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서 교류하고 싶었던 뉴멕시코주 주민들과 함께 12회 한인 김치 축제를 통하여 1,000여 명의 만남의 광장이 소개되었습니다. Albuquerque Garden Center에서 열린 이희정 무용단장님의 화려한 춤으로 시작된 축제는 협찬해주신 KOWIN 모임과 GCOOP 조영랑 이사님과 State Farm Insurance의 Stephen Stover 와 그의 가족과 함께 회사 직원들이 펼친 색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우리의 전통음식들을 즐기며 행복하고 기쁜 하루를 지냈습니다. 피곤했지만 저희 모두의 가슴이 뿌듯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중에도 윤희규 박사님의 탁월한 재능으로 전체지휘를 맡아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한국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아동지침 목적 중에 으뜸이던 전학생 모두를 개성을 잘 살려주는 진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한국학교 부회장 신동완 교수님의 보살핌과 박영신 교장 선생님과 정지에 교감 선생님과 그리고 최신옥 이사님의 요리 교실을 통해 아낌없는 후원과 함께 또 모든 선생님들의 정성이 열매를 맺어 사랑의 부자, 마음의 부자, 봉사의 부자, 후원의 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하시고 또 재무 업무를 깔끔하게 봉사해주신 마명순 재무님께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주최로 매년 열린 평화통일에 관한 주제로 저희 아동들의 창의력을 끌어내어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에서 저희 뉴멕시코 아동들의 앞으로의 희망이 밝게 표현되어 참 기뻐했습니다. 조규자 지회장님의 도움으로 매년 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맞이하여 18대 한인회는 그 전해에 배운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넓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도로 일 년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전 세계가 함께 질병으로 건강에 위협과 활동 제한을 주는

민명희

뉴멕시코주한인회 회장



관계로 저희도 심하게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과 노약자분들과 한인회 어버이분들의 감염을 염려하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저희는 주지사의 지침을 따르면서 안전을 제일로 삼아 3 월부터 무한정 모임과 한국학교를 닫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제지로 한인회 어버이 회원들을 위한 야외나들이, 관광 프로그램도, 격주로 봉사하던 수요모임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활동이 제한된 삶을 사시는 우리 어버이 회원들이 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만남이 자유로워 졌을 때 새 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어버이회원분들과 노약자분들께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버이 회원 여러분들께 열심히 봉사해주신 임낸시 부회장님과 강은순 어버이 회 회장님과 김애경 님과 정인자 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 곁을 떠나셔서 하느님 품에 안식을 얻으신 양익환 어버이회분, 김재태 목사님, 전 한인회장 최진 님, 박영교 권사님 모두가 평화의 안식을 얻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한인회는 전 한인분들을 대표해서 이 COVID-19 기간동안 5 차례에 걸쳐 지역사회에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3 개의 알버커키 주요 병원의사들과 간호원들, 응급실, 중환자실, 모든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로 봉사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다고 또 저희들의 관심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여러차례 전달 받았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식당 Sushi & Sake 와 Samurai Grill & Sushi Bar 사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A-1 Market, Arirang Market, 그리고 Kim's Market 사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overnor order로 COVID-19 확진자 숫자가 늘어서 Gallup을 봉쇄했을때 저희는 인디안촌을 방문해서 필수 식료품과 함께 마스크도 전달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봉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8대 한인회 선관위원장 John Lee 님 지휘아래 4분의 선관 위원분들; 김 헬레나 님, 조영랑 님, 조환준 박사님, 윤희규 박사님들께서 뉴멕시코주 역대 최고의 정확성이 있는 통계자료와 함께 교류의 장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뉴멕시코주 통도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해주셨고 그로인해 최종 결과도 멋진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선관위원회 부칙에 기준해서 단일 후보자등록으로 투표없이 단독후보자인 윤태자등록인이 19 대 한인회장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2020 미 대선 개표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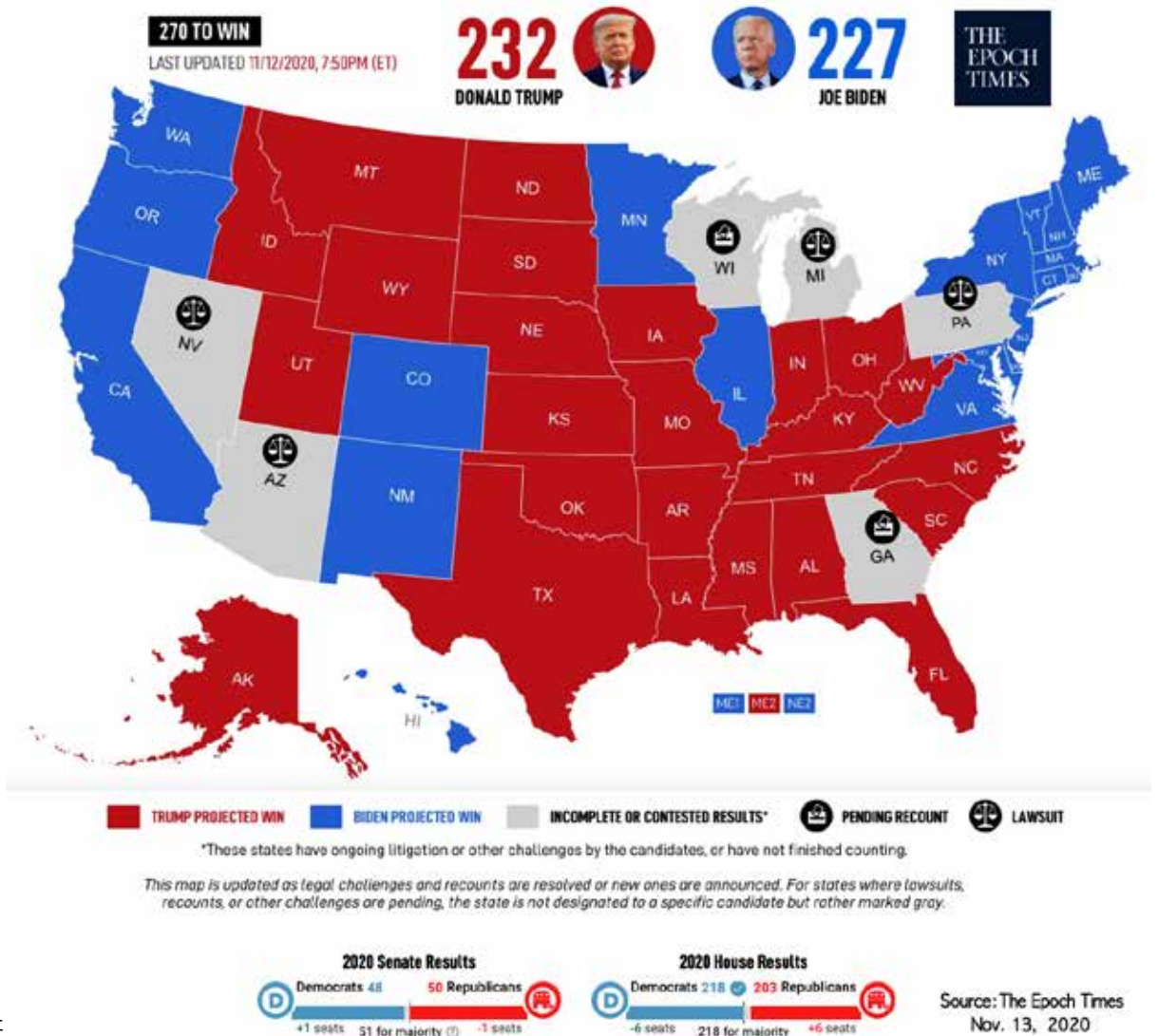
2020년 미 대선 투표는 미국 역사상 1900년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88.9%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경합 주 승부가 치열해지면서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 제도가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언론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인 신분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와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개표와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당선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13일 현재 아래 도표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6개 경합 주에서 개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도표 출처: The Epoch Times (11.13.2020)



18대 한인회 임원진 가족분들께 함께 생활하고 봉사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대식 수석 부회장님, 신동완 한국학교 부회장님, 임넌시 아버지회 부회장님, 이성희, 임은주 총무님, 함은경, 김숙희 재무님.
이사회: 박찬영 이사장님, 김덕향 부이사장님, 김태원, 조영광, 임혜숙, 최희수 이사님
모두 이사회를 통해 한인회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함께 의논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이사회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뉴멕시코주 동포님들!
COVID-19 으로인한 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모든 분들께서 건강을 굳건히 지키시고 이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때가 빨리 찾아 올수있도록 다함께 기도에 열심합니다.
빼돌려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수있도록 하십시오.

새로 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윤태자 회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할때 우리는 승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8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민명희 배상.

뉴멕시코 미 상원, 하원의원 선거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은 2020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미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현직 민주당 상원 의원 Tom Udall이 3선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하게된 자리에 선출되었다. 이번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마크 론케티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루한은 뉴멕시코주 하원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활동해 온 라틴계 정치인이다. 루한은 미 상원 현직에 있는 하인리히 의원과 함께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된다.



테레사 레저 페르난데즈(Teresa Leger Fernandez)는 미국 하원의 뉴 멕시코 3 지구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페르난데즈는 30년 동안 산타페에서 Leger Law and Strategy, LLC를 운영해 왔다. 현직 하원 의원 Ben Ray Luján이 2020년에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하게 되어 Fernandez는 제 3의회 선거구를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이 된 것이다.



이베트헤럴(Yvette Herrell)은 뉴 멕시코 제 2 의회 선거구에서 미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공화당 의원인 그는 2011년부터 2019년 1월 까지 뉴멕시코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다. Herrell은 11월 총선에서 Torres Small 현직 하원위원을 물리치고 공화당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체로키 여성, 세 번째로 선출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뉴 멕시코 출신의 두 번째 원주민 여성 및 최초의 공화당 원주민 여성이 되었다.



데브라 앤 할랜드(Debra Anne Haaland)는 알버커키가 포함되는 제 1의회 선거구에서 재선되었다. 샤리스 데이비스와 해런드는 미국 하원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두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다. 할랜드는 라구나 푸에블로족 출신이며 노르웨이 계 미국인인 그녀의 아버지 J.D. "Dutch" Haaland 소령은 미국 해병대 장교였으며 베트남에서의 활동으로 Silver Star를 수상했다.



산타페 광장의 군인 기념비

산타페를 관광여행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는 곳이 아마도 도시 중앙에 있는 산타페 플라자일 것이다. 이곳 플라자 공원 중앙에 세워져 있는 뾰족 탑 모양의 군인 기념비는 자연히 여행자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이끄는 역사 유적물이다. 영어로는 오벨리스크(Obelisk)라고 하는 이 기념비는 과거 남북 전쟁 당시 이곳 뉴멕시코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투에서 전몰한 Union Army (북군)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 약 150여 년 전 (1868년)에 지어졌다.

남북전쟁의 승패의 전환점이 되는 전투가 펜실바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하는데 당시 미시시피강 주변과 서부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대결은 산타페 동쪽에 있는 글로리아에타에서의 전투가 뉴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북상하던 남군을 막아내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서부의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말하기도 한다. 뉴멕시코의 남북전쟁 당시의 상황은 동부지역처럼 남군과 북군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 지역 원주민 인디언과 뉴멕시코

준주를 지키려는 북군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투도 수없이 이어졌었다.

군인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을 보면 글로리아에타 전투를 위시한 여러 전투에서 목숨 잃은 북군의 군인을 영웅으로 기리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중 하나의 비문은 "TO THE HEROES WHO HAVE FALLEN IN THE VARIOUS BATTLES WITH SAVAGE INDIANS IN THE TERRITORY OF NEW MEXICO" 번역하면 "뉴멕시코 영토에서 야만인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죽은 영웅에게" 라고 원주민을 비하하는 글로 되어 있었다.



한인사회 소식

한인 미 하원의원 줄줄이 당선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여성 미셸 박 스틸(65)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8지구 선거에서 현역 할리 루다 후보를 제치고 되었다. 미셸 박 스틸 당선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19살에 미국으로 이민, 남가주 페퍼다인대학을 졸업했다. 공화당 전국위원인 남편 셉 스틸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미셸 박 스틸 당선인은 지난 2006년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에 당선돼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치른 선거에서 모두 이겨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는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같은 당의 베스 도글리오 현역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순자'라는 한국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년 뒤엔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코마 시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하원의원 중 유일한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D)은 뉴저지 3 선거구에서 재선됐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53%-45% 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2018년 초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993년 의회에 입성한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의회에 입성한 한국계 정치인 이었다. 그는 1860년 이후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민주당 의원으로도 기록됐다.



2년전 연방하원 진출 문턱에서 좌절된 캘리포니아 39지구의 오렌지카운티 영 김 공화당 후보는 현역의원인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에 50.6% 득표율을 얻어 시스네로스 의원을 1.2%포인트 앞질러 당선됐다. 김 후보가 출마한 39선거구는 보수 유권자가 많은 오렌지카운티를 걸치고 있어 공화당 강세로 분류되며 한인 유권자도 1만8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천 출생인 김 후보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 시절을 보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LA)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다. 한미연합회 전국회장을 지낸 남편 찰스 김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1년간 근무하였다. 2014년에는 한인 여성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산타페 광장의 군인 기념비 <계속>

1974년 어느 날 대낮에 한 원주민이 끌과 망치를 들고 올라가 “야만인”이란 단어를 깎아버렸다. 이 비문은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기념비 비문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왔다.

지난 10월 12일 원주민의 날을 기하여 시위대가 3일전 부터 플라자의 군인기념비를 점거하고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기념비를 보호하던 경찰이 잠시 자리를 철거한 사이 시위대는 밧줄로 기념비 탑을 묶어서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기념비가 훼손된 소식을 보고받은 산타페 시장 앨런 웨버 (Alan Webber)는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페이스북에 비디오 게시를 통해 역사적 기념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언급하기를 “우리가 산타페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기념비가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던 광장의 시위대 군중은

환호했고 어느 원주민 여인은 말하길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념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말했다.

산타페 근처에 있는 테스크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은 군인기념비 파손의 소식을 듣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Tesuque의 푸에블로의 입장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특정 기념물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파손행위의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다.

산타페시장 웨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예술과 기념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산타페와 뉴멕시코 북부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민화 전시회

3분의 행복

3분여 울려 퍼지는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행복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각자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화를 또 다른 이는 자연에 동화되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책과 더불어 별다방의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위로를 받던 어느 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화”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정해진 틀 없이 소박한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반영하면서 자연에서 구해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화선지 위 붓 끝자락으로 저의 염원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때 느꼈던 마음의 편안함, 마치고 난 후 눈으로 다가오는 느낌들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나의 첫째 준 모, 막내답지 않게 너무나 고군분투하는 멋진 준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랑, 그리고 COVID-19로 인해 우리 가족과 같은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제가 준비한 “3분의 행복”을 통해 제가 느꼈던 행복한 기운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인회 재무 담당 김숙희입니다.



전시회 안내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12:00PM~5:00PM

장소: SAMURAI

예약(ONLY): galleriesuki20@gmail.com

이스라엘, 아랍 국가와 수교 협정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의 중재로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과 이슬람교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다. 5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간에 서로 악수한셈이다.

지난9월 15일 백악관에서 갖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인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UAE 셰이크 압둘라 빈 자에드 알나흐얀 외무장관,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이 각각 참여했으며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협정 명칭은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택하여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으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분열과 갈등 끝에 새로운 중동이 시작하는 모습을 맞이했다”고 말 했다.

이스라엘이 걸프지역의 아랍국가와 수교에 합의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1979년 북아프리카권 아랍국가인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서아시아권 내륙국가인 요르단과 평화협정으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다.

차기 한인회장에 윤태자씨 당선

뉴멕시코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1일 제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으로 윤태자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윤태자 입후보자에게 “축하합니다. 제19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세부규정 제 8 조 1항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회장에 당선된다’에 의거, 제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의 당선인 자격이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윤태자씨는 현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권사로 여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바이러스억제위해 2주간 제한명령 주지사 발표

최근 뉴멕시코에서 COVID-19 감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대책으로 미셸 루한 그리섬 주지사는 11월16일 월요일부터 식당에서의 식사를 금지하고 미용실, 체육관 및 기타 비 필수적인 사업체 운영을 2주간 중단하도록 명령 했다. 영어로 Shut Down 명령이다.



그리섬 주지사는 뉴멕시코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멕시코주의 7 개 주요 병원은 이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 용량을 초과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루한 그리섬 주지사는이 명령은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함께 살지 않는 한, 5 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공공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적인 사업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업체는- 식품점, 약국, 탁아소등이다. 식당은 주문이나 테이크아웃은 허락되지만 식당내에 손님은 받을 수 없다. 대형 소매점은 25%의 정원이나 75명의 손님 두가지중 작은 숫자로 제한한다고 했다.

화이자 “코로나백신, 예방효과 90% 넘어”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백신이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도 어제(9일) 성명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 독감 백신 효과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60% 낮춥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의 이번 결과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4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것으로,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학은 어제(9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천11만여 명과 23만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연이어 10만 명 이상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5천 91만 명과 1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콜롬비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한국학교, 민주평화자문회의 후원 제 3회 통일문화예술대회 개최

지난 10월 24일 뉴멕시코한국학교(교장 박영신)는 민주평화자문회의 뉴멕시코 지회 및 지회장 조규자의 후원을 받아 제 3회 통일문화예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대회는 평화 통일에 관한 자유 형식의 글과 그림을 주제로 하며 한국학교를 다니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여 대회 당일 오전에 제출하고 시상식도 드라이브 드루로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규자 지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통일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이런 문제에 앞장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글과 그림이 우수하고 분단된 남과 북의 현실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글과 그림을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 깊었고 지도에 힘쓴 한국학교 교사진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후원하게 된 계기와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평화통일(1등) 상을 수상한 한준희 군(Desert Ridge Middle School 7th)은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고 큰 상까지 받아서 너무 기쁘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이번 대회에는 총 2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모든 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고려해 전원에게 블루투스 헤드셋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



한국학교 소식

남북한이 하나된 강하고 행복한 나라, 통일 한국을 꿈꾸며

한준희

Desert Ridge middle school
7th grade, Joseph Han
뉴멕시코 한국학교 7학년



요즘, Covid-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5살이 된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매일 아침 8 시에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첫번째로 하는 일인 '충성의 맹세'를 외워서 잘 따라 합니다. 동생이 하는 '충성의 맹세'를 듣고 있으면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하나의 나라이고 나누어질 수 없으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인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며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몇 천년동안 하나의 나라였으나 지금은 75년째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남한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2019 년에 국방비는 336억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큼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중 군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130만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너무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사람들이 군대에서 일해야만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금, 우라늄, 철, 아연, 구리, 석탄, 납, 마그네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땅이 넓어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까지 땅을 통해서 가려면 북한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싸기 때문에 기차길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기차길을 연결해서 북한을 지나서 대륙으로 갈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척들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6.25전쟁 때 어린 아이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평화가 있어야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 어떤 가족들은 헤어졌습니다. 그

성황리에 마친 상속 세미나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줌으로 진행되었던 상속세미나는 이를 동안 300여명의 미주 한인 교민들이 참가하셔서 상속 전문변호사님의 진행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들에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 차이점
2. 미국 상속에 대한 세금
3. 미국 상속법의 절차
4. 미주 교민들이 준비 해야 하는 상속플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교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제공 :HAN JU LEE)

상속세미나

Will
Living Trust
Estate Planning
ILIT & more...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누나, 동생과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하면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보고 싶은 엄마, 아빠, 동생, 사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이 되면 좋은 점으로는 북한에 있는 배고픈 친구들이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 년에 북한 전체 인구 중 영양부족의 인구는 47%로, 아이티(48%)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먹을 음식이 너무 많은데 북한은 부족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칠리 햄버거를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된 북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북한 여행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아름다운 곳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좋은 점으로는 한국이 강해지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에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국방비 낭비를 줄이고 북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한다면 더욱더 경제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산가족이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된다면 하나가 된 민족으로 통일 한국은 더욱 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나의 재정 상황 관측은가?

안녕하세요. 뉴 멕시코 교민 여러분들
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재정 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이한주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고,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로스엔젤레스에서도 고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워지고 화상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신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마케팅 방법도 변해야 하고, 사회 변화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은퇴플랜, 자녀학자금, 생명보험, 상속플랜, 텍스절세플랜등을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35개의 오피스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드리고 플랜을 계획 해 드립니다.
미국땅에서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 모아놓은 재산은 기대이하로
적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유태인과 달리 저축 또는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고, 텍스절세를
못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어려서 부터 돈에 대해서 배우고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인컴의 일부를 미리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부를 축적하는
그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지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축을 하다보니 그들과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정부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여러차례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것들이 앞으로 텍스로
연결되서 우리의 납세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르게 될 텍스 세율 역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줌 미팅이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이루어지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메일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HAN JU LEE
CA. INS. # 0K41143/ NM #17684619
213-321-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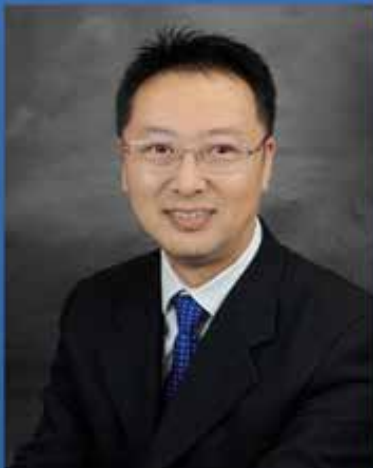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은퇴연금
생명보험

학자금
401(K)

텍스절세
상속플랜

무료 줌 미팅 상담 해보세요.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 0K41143
NM LIC. # 17684619
AZ LIC. # 17684619
213) 321 - 8787
carlitos3840@gmail.com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아사히 익스프레스 식당

알버커키시에 한국인 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이 새로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당을 찾아가는 것은 9월 첫 토요일 점심때였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규제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다. 전화기로 들리는 영어 발음은 분명 미국인으로 짐작했으나 그래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혹시 한국인은 아니신가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 맞아요’ 하는 주인이 되시는 김명희 씨의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Take Out만 가능했으나 최근 규제가 조금 풀려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다. 식당의 위치는 UNM 캠퍼스를 마주 보는 센트럴 가에 있었다. 작은 주차장도 옆에 있는 T-Mobile 전화 상점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식당을 들어서니 김명희 씨가 조금 전 전화하신 분이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새우벤또와 스시 두 가지를 주문해서 우리 내외는 맛있게 점심을 먹는 동안 주인 김명희 씨는 손님 서비스하시면서 틈틈이 테이블에 다가오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광야의 소리 독자를 위해서 서면 인터뷰를 부탁했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던 오진목 씨께서도 쾌히 승낙해주시고 부부 사진도 한 장 찍어드리고 나왔다. 아래의 글은 오진목 씨와 이메일로 서면 인터뷰한 내용이다.

(질문 1) 알버커키에 ASAHI EXPRESS 식당을 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진목 씨와 김명희 씨 부부께서 이곳에 식당을 열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1) Albuquerque ASAHI EXPRESS RESTAURANT 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딸아이 둘과 손자 둘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내외의 나이가 아직 일을 손에 놓기는 이르고 해서 식당을 오픈 했습니다.

질문 2) 식당은 언제 여셨으며 식당 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주 좋는데 어떻게 직접 하셨나요?

(답 2) 우리 식당의 오픈한 날짜는 2월 22일 입니다. 인테리어는 저와 집사람이 직접 만들었어요.

(질문 3) 판데믹 기간에 영업을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요?

(답 3) 세 군데 딜리버리 회사와 조인을 하고 식당 홍보를 위해 조그마한 To Go 메뉴를 인쇄해서 바깥에 메뉴 꽃이를 만들어서 비치해두어 지나가던 손님이 손쉽게 픽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저렴하게 하고 또 간편하게 테이크 아웃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였고,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양도 평소보단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던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질문 4) 메뉴를 보면 일식 한식이 다양하군요. 특별히

손님들에게 인기를 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메뉴는 어떤 것입니까?
(답 4) 한국식과 일본식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고기에 일본 스시를 곁들여 주었어요. 물론 김치도 곁들여 주었어요. 메뉴는 각종 스시와 불고기, 갈비, 제육볶음, 고마 치킨<고추와 마늘> 등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진목씨와 김명희씨 내외

(질문 5) 알버커키에 오시기 전에도 타지역에서 식당을 하셨었는지요? 이곳 오시기 전 생활 경험 등 나누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 5) 메릴랜드주에서 11년 정도 쓰시바를 운영을 했고,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식당을 운영해보았습니다. 러시아는 1992년 구소련 현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한국관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1999년 러시아에도 IMF가 터져서 철수하고 나왔어요. 일본에는 2000년도에 들어가서 요코하마에 있는 한국촌 안에서 횡집 ‘어가촌’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2008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의 처는 연방정부 국방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CPA로 일해왔으나 이번 식당을 열게 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6) 가족 얘기도 부탁드립니다.

(답 6) 저희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자, 손녀 각 한 명씩 있습니다. 네 살, 두살 입니다. 첫째 아들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그쪽 회사에서 부사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딸이고 현재 손자(10살), 손녀는 (5살) 이고 직업은 대학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상업조직 심리학 박사 과정을 UNM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컴퓨터 엔지니어를 전공하였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안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7) 뉴멕시코로 이주하신 소감이나 이곳 한인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 7) 맑은 날씨와 좋은 공기 그리고 친절한 동포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Asahi Express (Korean & Japanese Food)
전화:505-243-8089 주소: 2106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글: 편집부)

코윈(KOWIN) 소식



박광종

뉴멕시코KOWIN지회장

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때쯤이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그10월이 훌쩍 지나가려한다.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해주던 모습도, 반가워서 악수를 하던 모습도, 또래친구들과 놀면서 실새없이 웃고 떠들며 서로를 잡겠다며 이리저리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과 웃음소리도 코로나의 출현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고 말았다. 커피를 두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며 서로의 생활을 걱정하고 나누던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젠 까막히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한숨을 짓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에 코윈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예산을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로나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부터 코로나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 전통을 경험하고 느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석에는 제기와 공기, 팥이를 나눠주었고, 송편재료를 참가하시는 가정에 나눠 드려 아이들과 송편을 만들며 담소를 나눴고, 김치만들기행사때는 배추, 무우, 파를 나눠 드리고 김치 만드는 체험학습과 동시에 맛있는 김치도 먹는 즐거움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 조금 더 의미를 더할까 하여 아이들의 체험 행사를 동화책으로 만드려는 계획이며 이 모든 행사는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더불어 코윈 뉴멕시코지회에서 지원한다. 이는 매년 코윈에서 지원해왔던 지역사회 봉사,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 지원등과 더불어 한국인 차세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매년 한국학교에서 추석에는 코윈회원들과 한국학생들이 만들던 송편을 이제는 Zoom을 통한 Virtual Learning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미리 전해드린 반죽과 속으로 아이들이 작은 고사리손으로 하나하나 송편을 빚어가던 모습들. 추석과 송편의 유래도 알아보고 송편을 빚어가는 그 모습에서 예전의 아이들의 활기발랄함과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고 보름달만큼이나 환한 추석준비를 하게 되어 같이 참가하신 부모님들의 모습도 덩달아 환해졌던건 아닌가 하는 즐거운 착각도 해본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이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 부모님의 역할분담이 되어 버린 현실. 교육을 책임지고 전담해야하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수렴해서 영어와 수학평가에 대한 세미나로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코윈의 또다른 의미 있는 행사였다. 영어평가는 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에서 교육대학원Curriculum and Instruction과의 학과장이자 코윈부회장인 박선숙교수님께서, 수학과평가와 전반적 수학교육은 Eisenhower Middle School 수학선생님이신 한은영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미국교육의 평가시스템과 전반적인 교육문제를 나누고 배워보는 자리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김치만들기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것은 코윈회원님들의 봉사. 그 중에서도 윤혜영회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김치 만들기 행사에서 아이들을 차근차근 이끌면서 맛있고 모양도 예쁜 김치 깎두기를 만들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무우의 모양도 크기도 다 달랐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담그는 깎두기가 신기한지 열심히 몰입했고 자신이 담갔다는 뿌듯함에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김치를 먹는다며 어머님들께서 흡족해 하셨다. 재료들을 한국어로 배워보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찬찬히 두 종류의 김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코로나때문에 한인회에서 주최하였던 김치축제가 취소되는 관계로 인하여 김치축제마다 코윈에서 담당했던 김치만들기 체험을Zoom으로나마 아이들과 같이 깎두기와 물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했다.

미국에 사는 차세대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전통을 전수하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부모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서투른 한국어 실력때문에 한인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윈은 차세대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설립하고 다른 지역사회에도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윈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온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자녀들을 위한 김치바자회를 매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하는 이때 코윈은 이들을 위해 올해도 김치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로 추위로 움추렸던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기위해 더 멀리 뛸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 봉사하려는 코윈회원 한분한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다.



기도문



한은영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Public School
전도사 /Math. Teacher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생명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영이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문보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이 무의미한 사랑과 평화와 성공을 외칠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국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하며, 더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와 염려들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대리가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끝나는 신앙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대로 행하고, 배우고 깨달은대로 실천하는 믿음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짓된 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위정자들을 따라가다 실망하고 돌아서지 말고 좁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나라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며

겉으로만 평화를 외칩니다. 하지만 잠시 평안해보이는 이때, 세상 나라들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며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있는 우리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에, 묵숨까지 내어놓으며 고난속에서 믿음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세속적인 명예와 돈의 유산이 아닌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선교지에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흠어져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사람손에 있는게 아님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의 지혜를 저희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들을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넘치게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역사회 소식

이찌반 일본식당 리모델 완료...

코랄레스에 있는 이찌반 식당(Owner:신광순)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리모델링을 4월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의 공사를 완료하고 손님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Ichiban Japanese Restaurant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다. 지난 9월16일에 페이스북에 식당 밖 Patio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한 사진을 올리고 Takeout이나 Indoor/ Outdoor식사가 모두 가능한 점을 알렸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정지되어버린 여름기간을 이용하여 이찌반 식당은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지혜가 엿보인다. 식당의



위치는 리오란쵸로 들어가는 Alameda 와 Corrales road가 만나는 네거리의 북쪽에 있다.

웹사이트:
ichibanabq.com

주소: 10701 Co-
rrales Rd. NW
Albuquerque N M
87114
Tel:505-899-0095



Owner: 신광순, 신옥주 부부



워싱턴 DC 소식

신임 배럿 연방판사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9월1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여성으로서 두번째로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12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은 법관으로 일을 할때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인준 투표표를 거쳐 10월26일 상원 전체 인준 투표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상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날(26일) 상원 표결 직후 선서식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럿 신임 대법관이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으로 합류하면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되어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배럿 대법관은 노트르담 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법학자이다. 1972년 1월생 만 48세로,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젊은 법관이다.

아름다운 사람들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천국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천사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전지 전능하고 영원한 존재이지만, 몸소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기는 불가능해서 때로는 천사를 세상에 내려 보낸다. 천사는 몸에 날개를 달고 흰옷을 입는다. 우리는 행실이 아름답거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사람을 천사 같다고 한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집 앞 큰길 건너에 인근 열여섯 가구가 사용하는 공동 우편함이 있다. 배달부가 우편물을 각 가정의 함에 넣어 두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와서 가져간다. 거기에는 함 하나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우표를 붙인 편지를 넣으면 배달부가 가져가 발송해 주어 우체국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우편함은 때로는 우편물을 가지러 오는 이웃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곳이 된다.

2018년의 11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우체통 앞에서 만난 사론이 며칠 뒤의 추수 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작정이냐고 묻는다. 초대 받은 일도 없고 어디를 갈 계획도 없어서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대뜸 자기 집의 만찬에 초대해 주는 게 아닌가. 이웃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끔 만나면 가벼운 인사나 나누던 사이인데, 뜻밖의 초대를 받고 얼떨결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시간에 맞춰 예쁜 종이로 포장해 둔 적포도주 한 병을 들고 갔다. 남의 집을 방문하면 으레 거치는 인사 나누는 차례. 사론의 남자 친구 스티브가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교수로, 재임 중에 서울 대학교에 세 번 초청되어 매년 3주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서 한국을 꽤 잘 알고 있었다. 오리건 주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한다는 사론의 아들도 만났다. 50대 전후의 키가 훗칠하고 몸이 건장한 남자는 바로 이곳 앨버커키에서 산다고 했고, 그 사람의 여동생 내외는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왔다고 했다.

사람의 수도 적은데다가 한국에 관한 질문에 내 대신 스티브가 많이 대답해 주어 분위기가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신상에 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주제가 되었다. 50대의 남자가 댈러스에서 온 자기 여동생 내외를 보면서 자기와 동생은 의붓어머니인 사론과 명절을 함께 보내려고 왔다고 한다. 이어서 내년에는 앨버커키에서 사는 생모와 함께 추수 감사절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복 형제 남매들이 스스로없이 대하는 모습도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 푸짐하게 잘 차린 음식을 골고루

맛보면서, 사론의 산뜻하고 아름다운 얼굴은 바로 고운 마음결의 산물이었구나 했다. 얼굴은 정직한 언어나고 하지 않던가.

대학교에서 후원금 및 연구비 관리자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론은, 누가 봐도 곱게 늙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안락한 노년은 젊음을 잘 보낸 보상이며, 그것은 흔히 얼굴에 나타난다. 그 주인의 생각이나 감수성 또는 마음씨를 바르고 곱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마음씨가 얼마나 고왔으면 이런 만찬회가 열렸을까. 사론이 달리 보이는 것이었다.

한 달쯤 뒤였을까, 신년을 맞이하는 제프리의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는 내 집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살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는 생꿀을 생산하여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로버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의 부인 낸을 만나기도 했으며, 볼 때마다 전형적인 신사라는 생각이 드는 60대 중반의 사내다. 제프리의 집까지 걷는 동안 로버트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를 놀라게 했다.

결혼 2년 만에 아내 줄리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는 바람에 지극ंत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 병은 주로 20~30대에 많이 발병하는 중추 신경계의 만성 질환으로, 뇌와 척수에 작은 섬들이 흩어져 깔린 모양의 경화 현상이 일어나 언어 및 시력 장애, 운동 실조, 정신력 쇠퇴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이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20년이 넘도록 환자를 집에서 간호하다가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병원의 특수 시설에 입원시켰다. 그 뒤 퇴근길이면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생활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여 년이나 계속하고 있다. 그 날 저녁에도 파티가 끝나는 대로 의사인 로버트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제프리의 희생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 줄리의 친정 식구들이, 4년 전이던가 홀로 된 줄리의 언니를 서둘러 제프리와 짝지어 주었다. 내가 만났던 낸은 바로 줄리의 언니였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줄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흡사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다. 그의 희생 정신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그 지경이 되었다면? 문득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서,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천사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 달 사이에 두 천사를 만난 나는, 어찌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으로 2019년 새해를 즐겁게 맞이했다.

칼럼

우리가 주께 범죄 하였나이다.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랑하는 아버지께 형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켜 수고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지요? 참으로 전에 경험치 못했던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모두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정직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금년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미국 정착과 건국으로부터 눈부신 성장과 발전, 팽창과 국제적 부상은 그 중심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한 줌의 청교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르시고 그들을 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신생국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여 당시 최강의 영국과 맞서 7년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세계 제1, 2차 대전에서 승전하여 전 세계를 인도하는 지도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신앙과 사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성장 발전시키기도 하여 세계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그들의 불같은 신앙은 식어지고 교회는 그 힘을 상실하여 그동안 찬란했던 American High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들은 목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책임감 없는 자기중심적 삶에 길들여서 자신을 위해서는 못 할 것이 없는, 그 뜨거웠던 선조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분별 못 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조상 때부터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굳어진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함을 아시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정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야말로 이미 주신 말씀 따라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응답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렘 14:20b)로 슬피 자복하는 예레미아의 심정으로 이 거룩한 생명 회복 운동이 먼저 믿은 우리들로부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으며, 한 해가 영그는 아름다운 계절에 평안을 빕니다

교회소식

일년을 되돌아보며...



윤태자

아버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 권사

윤태자

일년을 되돌아보며...

2020년 3월부터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코로나-19사태로 뉴멕시코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게 되고 식품품 사재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친교를 중지하게 되었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뛰어 앉아 소수만 예배를 보고, 타주에 다녀온 사람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부모나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 참석을 자제하도록 광고가 되었습니다.

Zoom, Facebook, 또는 Youtube로 예배를 보며 속회를 하며 삶은 단기간에 기술적으로는 5년은 빨리 발전하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색하지만,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은 그리워하는 추억일 뿐 이미 과거가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삶은 현재요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삶을 그리워할 것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가고 살아남을까가 각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4월부터 교회 어르신과 지역사회에 편찮으신 분들에게 도시락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선교회회원들은 매주 시간을 내어 배달을 떠났습니다. 5월 아버지가 주일까지 식사 봉사를 하고 그 후로도 매주일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포도박스, 복숭아 박스, 집에서 탄 살구와 사과 봉지들이 예배 후 집으로 가는 교인들 손에 들리게 되었고 빵과 떡과 사발면, 떡국,

칼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맞는 감사의 달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올해 처음 두 달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인터넷을 통하여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더구나 뉴멕시코까지 들어오리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태평양 넘어 이내 알버커키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19의 위세는 막강하여 예배를 비롯하여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코로나19는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터넷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문은 닫혔지만 결코 주일 예배는 중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집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교인들은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이 되자 교회 인원의 25%까지 모임이 허락되었지요. 그 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말부터는 교회 인원의 40%까지의 모임이 허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서로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e)”도 지켜야 하기에 간격을 맞추어 앉다보니 입구까지 의자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려야 했지요. 그래도 저에게는 4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렸던 것에 비하면 교인들이 짝 찬 것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중순부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직접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집에서 시간을 맞추어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이 10명 내외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30가정 내외가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출석률이 400%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영어예배는 인원 수 걱정 없이 매 주일마다 아침 9시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김수진 집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아침 10시에 Zoom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 예배를 닫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은 LA에 계신 목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재정은 어떠냐고 물으셨지요. 사실 우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큰 변화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거나, 주중에도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던 기간에도 교회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왔습니다. 비가 와서 주차장 주변에 풀이 났을 때에는 아침마다 예배를 마치고 잡초들을 뽑아낸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나무들을 모조리 정리해준 교우의 헌신으로 교회 주변이 말끔해졌지요. 사실 이 나무들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제멋대로 자라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 무너졌던 담장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고장 난 정문도 지금 새로 수리 중에 있지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중단시킬 것 같았지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년을 되돌아보며...<계속>

우동면이 친교 대신 집으로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손수 만든 마스크가 나누어지고 서로서로 다독거리며 응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에티오피아 선교 가신 김광철 교수님께 여선교회에서 마스크 500장을 후원하였고 8월에는 페루, 인디아 등 저소득국가에 어린이 선교하는 김한희 선교 센터에서 하는 기금마련으로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하여 판매금전액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나바호선교팀의 광고에 여선교회에서 발 벗고 나섰고 Kim's Market에서 한 트럭분의 물건을

후원하였고 이태길 목사님께서 필요한 통조림과 치즈를 박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선교회회원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에서 우리들은 서로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일이면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과 다른 나라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은 따뜻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그 온기를 나누는 축복받은 하루였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길이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누가 자기 손자를 보고 못생겼다고 할까마는 오늘은 정말 잘생긴 우리 손자 앤드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인터넷 링크로 졸업식 광경을 보아야 했고 그것도 아이들 집에서 함께 가 아니라 '거리 두기' 예절을 지키느라 '따로따로' 였습니다.

지극히 통제된 세상에 갇혀 지낸다는 것을 또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방자했었던가도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푹하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가 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되어야 하고 더 빨리 이루어야 하는 전쟁 후 경쟁 시대를 살아 내느라 우리 세대는 참 경직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숨차고 급박했던 사정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으로 버티어 낸 것들을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그 절박했던 사건들이 가슴 저리도록 더 아름답게 남아서 우리로 오늘을 더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넉넉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전에 살아보지 못한 낯선 길 도중에서 잃은 것이 있으면 찾은 것도 있더라를 수 없이 여러 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얼마나 이루었느냐를 따지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구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볼 때 흰길 길이 뚫려있어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길이 있더라를 18살 새파란 손자와 앉아 비록 시원찮은 영어라 할지라도 함께 얘기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자신만을 이루려고 집착하지 말자는 부탁입니다.

'나쁜(bad)'의 어원은 '나쁜(only me)' 이라지요? 이 할미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길' 이더라 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말씀이 길이다 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신바람나게 하는 힘이더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만 '나쁜 (only me)' 으로 가는 이 세상을 사느라 때로 지치고 힘들고 마음처럼 빨리빨리 제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거기엔 이유 없이 우리로 지루하게 기다리고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분께서 쓰실 만큼 합당하게 되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차려야 하리라. 그저

재촉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야로 응원하시며 진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모든 훈련을 받는 거란다. 그 후에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나이다'라는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되리라.

이제 집을 떠나 대학이라는 처음 발걸음을 내 딛는 이 아이가 눈 밝고 귀밝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와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때마다 깨달으며 '믿음이 길이다'를 증거하는 삶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잠언 17:6) 하셨사오니 이 노종의 손자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얼굴에 마스크가 뉴 노말이 된 지 벌써 8개월! 같이 버스럭 이면 마음조차 버스럭...설레던 가을인데... 잘 물든 갈잎들은 어린아이들도 밟지 않고 주어다가 책갈피에 끼워 넣고 오래오래 고운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꾸곤 했었지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돌풍 속 같은 세월 일지라도 믿음이 길이다가 증거되는 고운 이야기들로 곱게 물들어 가는 단풍잎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시

분열



산유/레베카 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사
브레이버먼 센터 원장

욕심이 질투를 낳고
질투가 분열을 낳고
분열이 하루를 망쳐버린다

빨강과 파랑이 시끄럽다
서로를 잡아 먹고 먹히는
우울증까지 불러온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울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가

지나가는 생각... 한국어:과거, 현재와 미래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iversity of New Mexico
전도사/Computer Scientist

한국어는 나의 애어(愛語)다. 첫 10여년의 한국살이의 선물로 받고 이민과 청소년 시기때의 고민들로 가슴앓이할때 어머니가 주신 신상언 문화선교사의 수필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국어는 타향살이에서 나를 위로하는 언어가 되었었고 눈물흘리며 침묵 속에서 불으짚는 마음의 언어이었으며 십대 후반부터는 나의 일기장에서 같이 동행해온 언어이었다. 생계를 위해 지역 방송국 그 후 KBS 공식 번역가로 15년 정도 일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한국어의 변천사를 인식하게 되었다. 헛점 투성이지만 한국어 능력은 단지 선물일뿐,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터 오는 선물이다. 꾸준한 노력을 해서 습득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다 동일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선물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아끼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면서 매우 빠르게 알게 된것은 대다수의 한인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전도사가 되기 전에 중고등부에서 활동하면서 크게 두 문화권의 한인 학생들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때만 해도 88올림픽 직후라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을때여서 중고등부 설교가 대부분 한국어로 선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잠깐 있었던 작은 개척교회에서만 한국어로 설교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로 형성되어 한국어는 그저 부가적인 언어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전도사로써 특별한 한국어에만 내재되어 있는 민족주의를 들어낼 수 없는 고로 어떤 언어이든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파에만 열중했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국생활에 정착하느라 보통 미국인들 보다 2배 정도 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따로 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고 집에서 영어만 고집하는 부모들도 여러 있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한국어를 못하는 자녀들을 선호까지 하는 추세도 보였다. 다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진 것이니 비록 제한(知韓)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런 추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가정속에서는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게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하나의 큰 과제로 삼고 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어열풍이 불고 있다. 내가 있었던 1980년대는 국민 학교에서 Sesame Street 시청과 ABC 정도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온 후 이명박 전(前) 대통령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교육열풍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유치원때부터 시작해 모든 교과 과목을 영어로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본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기이한 광경이다. 무엇이든 희귀해지면 귀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언어까지 이런식으로 상품화시켜 버리면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속하는 문화, 역사 및 사람까지 평가절하시키는 일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빨리 서양문명과 접촉을 시작하며 서양에서 들어온 언어를 일본화 시켜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고유의 일본단어들이 손실되어 현재 일본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가 되어 오히려 시대를 거쳐 들어온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영어 단어들이 일본어를 조각이불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 근대 한국어도 근대 일본어와 같은 역사를 밟아 한국어 또한 비슷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보는 큰 모순이 있다.

그것은 최근 더 고조된 反日감정과 함께 한국어 순화 과정에서 다 마네기나 호치케스등 한국어로 들어온 여러 일본어에는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 분방하게 한국어로 스며 들어오는 영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과거의 로마 시대처럼 지금은 미국 달러 시대라지만 자신들의 언어가 이런식의 분방한 대체로 훼손되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의식을 못하는 것 같다. 물질주의적 역사관과 경쟁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지만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고 느껴진다.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도 쇠했고 미국 또한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언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은 좋게 생각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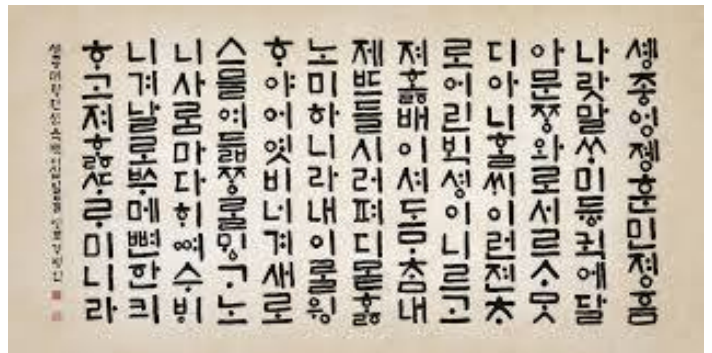
말소리 어(語)와 표시로 쓰는 글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10여개의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모두 같은 글을 쓰고 있다. 과거의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과 같은 글을 사용했지만 언어는 엄연히 달랐다. 일단 대중의 말소리가 달라지면 그 언어는 분명 바뀌고 있다는 표시이다. 한글은 한자와 달리 표음문자다. 그래서, 글을 보면 사람들의 말소리 또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현대 한국어의 특징이다. 한국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고 싶으면 과거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면 된다. 1920년 정도때 부터의 한국 신문들을 검색해 읽어보면 지금 배운 한국어로는 이해 안 되는 단어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인식하게

된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한국인으로서 잃어버린 것들이다.

과거 한자가 주로 사용되었을때를 생각해 보자. 사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한 글에서(한자)에서 다른 글(한글)로 대중적으로 전환된 일은 최근일이다.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게 보지만 그가 직접 쓴 글 원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내가 언어학면에 있어 이순신 장군을 자주 언급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영국의 William Shakespeare 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Shakespeare 명작들은 아직까지도 현대 영어로 속한다. 14세기 부터 지금까지 영어는 그리 바뀌지 않았다. 지금 고등학생 정도면 그리 큰 무리없이 Shakespeare 를 원어로 읽을 수 있다. 500년 뒤로 가도 그 시대의 영어를 지금의 영어권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부터 500년 뒤로 가면 특수한 교육을 받지않고 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스스로의 역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만큼 지금 한국인으로 받는 교육이 역사문법적 정체성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대로 가면 타지에서 한국어를 잘 보존한 한인들의 한국어와 한국에서 계속 바뀌어 사용되는 한국어와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의 세계적 연결로 인해 러시아 고려인들의 한국어와 현재 한국어의 차이만큼은 아닐 것 같다.

언어와 맞물려있는 것이 그 언어를 가능케하는 문화와 역사와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룰려면 책한권도 모자랄 분량이라 그냥 생각에 크게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언급만 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처럼 타국으로 인해 이렇고 저렇고 핑계는 하지 말자. 미얀마나 인도처럼 수십 수백의 부족과 언어로 구성된 국가도 아니고 단일민족이라 칭할 만큼 한 언어로 이어온 역사를 가진 자랑스런 한국인이고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한국어이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귀한 것을 싣받은 세대의 책임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으로 타향살이하고 있으면 자녀들을 그냥 근처 한국학교에 떠 맡기는 것에 끝내지 말고 집에서 바른 한국어를 어렵지 않게 전수하는 것을 부모들의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을 것 같다.

타향살이 한인 가정 한국어 교육방법:



노트: 원어민으로 키워야 본토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란 맹목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뭘 더 잘하게 한단 말인가?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본토어만 통하는 공간에서 살게 되기때문에 다른 모든 언어들에 부차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 0. 집에서 한국어 쓰기
- 1.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집에서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매우 쉬움) 그리고 나서 본토어의 알파벳을 가르치기
- 2. 6학년까지는 꾸준히 한글 읽기와 쓰기
 - 가정에서 매일 한글 성경읽기 (너무 쉬운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보단 개역/개정 강추)
 - 시간 여유가 되면 어려운 단어 설명도 포함
 - 인터넷이나 동화책이나 관심있는 책을 사용해 읽기
 - 학기동안은 지루하지않게 간단한 정기적 학습
 - 방학동안은 더 많은 쓰기와 읽기
- 3. 대학갈때까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되 대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단어를 학습하게 도와주기
 - 예: 하루에 새로운 한국어 단어 5개씩 외어 다음 날 시험(퀴즈)보기
 - 예: 재미있는 드라마 및 한국어 프로 시청
 - 예: 부모가 한국어 뉴스를 틀어 놓고 듣는다 (꼭 듣게는 하지 말것)
 - 이 나이때 쫓점은 스스로 흥미를 가지게 돕는 것***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수필

우리가 좋아 하는 과일 대추 (JUJUBE)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에는 뒷 마당이 좀 넓어서 꽃밭도 만들고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들을 심고 온실도 만들어서 양란 (Orchid) 을 약 150 개 정도 키웠었지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예쁘게 생긴 난을 찾았고 LA 남쪽에서 있었던 Orchid Show 에 는 세계 각국에서 양란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전문 지식과 양란의 특성들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보여주는 연내 행사인데 매년 참석해서 특출한 난들을 사 오기도 했지요. 많은 새 양란들이 전시 되었는데 아직도 Black Orchids는 개발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번은 하와이에 갔을 때 유명하다고 알려진 Orchid Farm 에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왕복 차비가 엄청 나서 망서리 다다 갔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판판 이었고 크게 실망 했던 적이 있었지요. 우리 온실

의 난 꽃들은 온실 온도를 거의 75도로 유지하고 습도도 30 %, 햇빛 강도도 Coating 된 유리를 사용 해서 적당하게 줄였기 때문에 꽃들은 4 계절과 관계 없이 늘 피어 있었지요.



자, 뒷마당의 과일 나무들은 Cherry tree 가 두 그루, 감나무가 한 개, 대추 나무가 한 그루, 살구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그런데 살구 나무는 아주 특수하게 개발된 것 이여서 살구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씨도 알몬드 처럼 먹는 특종 이였습니다. 우리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살구나무를 키우고 싶다고 하여 그 농장 이름을 알려 주어서 사다가 지금도 키우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추 열매는 잘 알려진 과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집 대추는 Osuna Nursery 를 운영하시던 고 안장환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나무였습니다. 안선생님은 Osuna Nursery 에 쇼핑 가서 만나면 가끔 이런 joke를 하시곤 했습니다. “ 김 장로님, 지난주일 왜 교회를 안 나 오셨어요 ? 깜짝 놀란 저는 “ 흑 씨 안선생님이 교회를 나 오셨나요 ? “ 아이구 농입니다. 교회 잘 나가시냐는 말입니다. “ 지금도 저는 Wit 있는 고 안장환 선생님을 많이 miss 하고 있어요.

그 뿐 아니라 안장환 선생님은 현재 우리 교회 땅을 이 장로님과 송종남 목사님과 함께 점심식사 하시면서 donation 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했던 것이고 정원의 Landscaping도 역시 free 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싶어 무궁화 꽃들 (Korean National Flower, Rose of Sharon) 을 여러 그루 심으셨고 들어 오는 입구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오래 산다고 하며 우리 교회가 오래 오래 계속 자라기를 바란다고 농 비웃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대추가 익어 갈 때면 많은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새들이 잔치 때 같이 왁자 지껄 하게 대추 옆에 앉아서 소란을 피우곤 했었어요. 대추를 쪼아서 대추 표면을 망 가 트 리고 떨어 트 리고 해서 저는 아주 큰 스크린 으로 대추 나무를 덮어 씨워서 대추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추수 할 때가 되면 큰 비닐로 대추 나무 주위에 피고 대추 나무를 흔들어 따곤 했지요. 왜 이렇게 대추에 집착 했냐 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추는 미국사람들이 말하는 Supper Food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건강 상식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본론을 말 할게요.

인체 내에서 유해산소 (Free Radical) 는 신진대사 작용이 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해산소는 체내에 흡수된 산소가 체내에 있는 분자들과 반응할 때 분자의 전자를 잃게 되고 유해 산소 또는 활성 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유해산소는 잃어버린 전자를 찾으려고 멀쩡한 분자의 전자를 빼앗아 유해산소를 증식시킵니다. 마치 원자로 안에서 Chain Reaction 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해산소를 중화시키는 항 산화 (Anti Oxidant) 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섭취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전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전적으로 채식을 하며 살았지요. 요새 말로는 Garden Diet 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비타민 C 를 섭취 할 수 있었고 장수 했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런데 대추의 비타민 C 는 꿀 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C 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Plymouth Rock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먼저 집의 여러 과일나무들을 아직도 miss 합니다. 그런데 다행 이도 우리 교회 몇 분 성도님 들이 대추를 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비타민 C 를 많이 섭취하면 항산화 (Anti Oxidant) 를 많이 섭취하는 고로 유해 산소를 많이 중화 시키고 결국은 노화의 주범들을 쓸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요리 중 대추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추 차로 많이 쓰이고, 한약에도 들어가고, 떡에도, 약식 또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라던가 붉은 색 을 내기 위해서도 대추를 넣기도 한답니다. 이 먼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단풍들이 예쁘게 물 들어 가는 가을에 작은 과일 대추를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 하고 옛 꿈을 꾸며 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옛 고향은 그리워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꿈이라도 꾸며 살고 싶습니다.

영어이야기 11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Coronavirus는 물론이고, SARS나 MERS사태때에도 특정음식이나, 영양제, 비타민등이 좋다고 많은사람들이 복용을 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COVID-19과 연관되어 Vitamin D가 화제에 오르곤 합니다. Vitamin은 탄수화물(Carbohydrate), 지방(Fat), 단백질(Protein)과 달리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광물질(mineral)과 함께 소량이 필요하고, 우리몸의 여러기능을 조절하는 신진대사(metabolism)의 효소역할을 합니다. Vitamin은 유기화합물로서, 우리몸에서는 거의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에의해 합성된 Vitamin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Vitamin D만이 햇빛을 이용하여 피부에서 콜레스테롤과 합성하여 Vitamin D를 만들뿐입니다. 이에 반해 mineral은 땅이나 물에 있는 성분으로 무기화합물인데, 식물에 의해 섭취되는것을 우리가 먹게되는 것입니다. Hormone은 우리몸에서 생성되지만, Vitamin은 우리몸에서 합성되지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주어야 하는것이 Hormone과 다른점입니다. 모든 Vitamin은 1913~1948년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폴란드계 독일의 생화학자 Casimir Funk에 의해 Vitamin이 알려졌는데, 그는 비타민효소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줄로 생각하여, 아미노산이 주성분인 Amine과 생명을 뜻하는 Latin어의 vita(vitalis)를 사용하여 Vitamine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Amine(아미노산)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Amine에서 “e”를 빼고 “amin”을 사용하여 Vitamin이 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vital이란 단어는 “necessary to life”의 뜻으로 “매우 중요한”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Trust is a vital ingredient in a successful marriage.”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상호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Vitamin은 특성에 따라, A 부터 K까지 분류되어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습니다. B군에 흡수되거나 별로 중요치 않은 Vitamin은 사라져 지금은 13개의 Vitami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Vitamin C를 제외한 물에 녹는(water soluble) 수용성 Vitamin은 전부 B에 속하는데, 흡수된 음식을 에너지(연료)로 바꾸는 일을 해줍니다. 생리학적 기능등이 비슷한 Vitamin은 한데 묶어 B그룹(B Complex)로 표시하고, 중요치 않은 B3, B4, B8, B10, B11등은 빠지고 지금은 B1, B2, B5, B6, B7, B9, B12등 7개만 Vitamin B에 속해 있습니다.

Vitamin G인 Riboflavin은 B2로 재명명 되었으며, Biotin으로 잘 알려진 Vitamin H는 B7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각기병(beriberi)은 Vitamin B1(Thiamine) 결핍에서 옵니다. 수용성 Vitamin인 B, C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Battery(전지)를 보면, 이것도 A, B, C, D type등으로 명명되어 있음을 봅니다, 진공관시대인1920, 30년대에는 대도시외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기위해 전압이 큰 battery가 필요하였습니다. 진공관은 3개의 다른 전압이 필요하였습니다. 진공관의 heater인 filament를 달구는 A

전지(6 V), plate에 높은 전압을 공급하는 B 전지(90 V), grid에 공급하는 C전지 등으로 나뉘어 졌는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오자 이들 전지는 너무커서 용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전자기기는 그 보다 더 작은 크기의 battery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A전지의 size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A 밑으로는 알파벳이 없어 AA 전지가 생겼고, 전압은 같더라도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AAA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커다란 전지인 D type도 AA나 AAA처럼 전압은 1.5V로 같지만 전류용량이 큼니다. Vitamin으로 다시 돌아와, Vitamin D가 요즈음 면역에 좋아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지않아 일조량이 적은데다, 피부가 탄다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Sunblock Lotion을 발라, 자연적인 Vitamin D(D3)합성을 막고있습니다. 더구나 겨울철엔 New Mexico 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은 햇빛을 쬐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Vitamin D는 그래서 우유나 Cereal(씨리얼)같은 음식물에 Vitamin D를 첨가해서(fortified) Vitamin D의 섭취를 돕습니다. 칼슘(Calsium)흡수를 돕고, 뼈의 성장관리, 면역기능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햇볕에 쬐임으로 합성되는 D3를 보충하기위한 보충제(supplement)는 양의 털에 있는 지방(fat)으로 만듭니다. Vitamin D가 있는 음식으로는, fatty fish, fish oil, 계란 노른자위(egg yolk), butter등이 있습니다. 모든일에는 적당량을 취하는것이 몸에 좋습니다.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합니다. Vitamin D를 과용하면 신장결석(kidney stone)이나 신부전(renal failure)같은 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renal”은 신장의, 콩팥의 뜻으로 신장결석을 renal calculus 라고도 합니다. Vitamin A, E, K와 마찬가지로, Vitamin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fat soluble) 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수용성과 달리, 남은 부분이 배설되지 않고 몸안에 쌓여,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수도 있으니, Vitamin D 결핍이 있을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량을 정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아직도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하고싶은것도 못하는 불편함을 느낄뿐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싫은 심신쇠약(burnout) 무기력에 빠질수도 있어, COVID-19보다 더 위험한 사회적현상이 도사리고 있는줄 모릅니다. 머리도 감기 싫고, 저녁도 하기싫어 microwave용 음식이나 먹고, 삶이 정지당한 느낌, 언제 사태가 끝날지 몰라 엄습해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허전함과 맥이 빠지는 오늘날, 얼굴을 맞대며 친구와 대화하는것이 최상이지만, 그보다 못하더라도 video를 이용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늘려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피지 선교사의 서신



이성일

Fiji 선교사
연합감리교회 목사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교우여러분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통과하고 계신 목사님과 알버커키 모든 교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가 깊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7월부터 피지 선교사로서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았지만, 코비드19 팬데믹을 인해 선교지인 피지에 발을 딛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 현지 소식

피지에서 제 비자를 담당하는 사무실에서는 저의 서류를 아직 이민국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하는 말은 국경이 봉쇄되어 이민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며, 국경이 열릴 때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피지의 국적 항공사인 피지 에어웨이는 내년 3월까지 운항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현지 선교사를 통해 들은 상태입니다. 이를 인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때에 열어주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안식 중의 시작되거나 진행되던 사역 안식 중에 하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이 사람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 Loving Meals Distribution Ministry (since Aug.15)-
Pandemic 이후 일자리를 잃은 스페니스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Homeless를 위해 음식 전달 사역을 위해 매주 토요일 9:00-2:00까지 Pal Park, North Bergen, Jersey City, Newark, Paterson을 돌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제자 삼는 사역 (Since 3/14)-
팬데믹 이후 뉴저지 실버 선교회의 33기 모임이 취소되었지만, 스태프 7명과 더불어 매주 토요일 6시간씩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개최(3/14, 21, 28, 4/4, 11, 18), 또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에 관한 세미나 (5/2, 9, 16, 23)를 열어 실버선교회 스태프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6/6-27)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8월말부터 12주간 이어지는 실버34기 훈련과정 (8/24-11/9)이 Missional Path(4강), Mission Exposer(4강), Missional Life(4강)라는 큰 주제아래 매주 월 7:45-9:00pm,매주 수(8-1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에 의존하던 것에서 보다 집중적인 제자훈련시스템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런 초교파적 사역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3) 마음을 열고 배우는 사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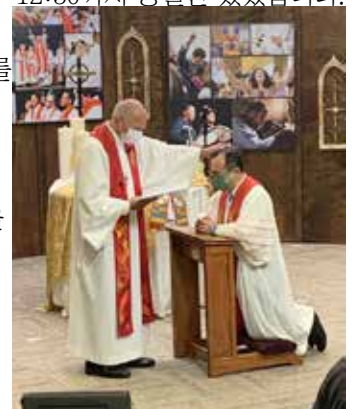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열려질 뉴노멀 사회를 예상하면서, 한인목회강화위원회(KPM)에서 개최하는 매주 월요일 강의 시리즈, 선교국(NPR)에서 매주 월요일 제공하는 강의들, 그리고 매주 화요일 Global United Mission에서 개최한 10주간 선교학교를 통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세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4) 선교지에서 가르칠 과목 개발 -

FIJI의 Methodist Lay Training College에서 앞으로 가르칠 여러 과목들을 미리 개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선교소명” (the collective calling of the church on the mission), Mission Exposer, 1:1 전도와 양육 시리즈(One on One Evangelism and Nurture),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은혜의 비밀: 전도/선교와 그 콘텐츠” (Mission and Its Contents: The Mystery of Grace revealed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등을 12주 과정 등을 개발하여, 줌을 통해 여러 나라의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르치면서 좀더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5) 뉴저지 연회의 선교사 블레싱 -

NJAC가 줌으로 10월 5-6일 8:30-12:30까지 양일간 있었습니다. 10월 6일 10:30분에 목회자 안수식을 갖기 전 선교사 블레싱을 위한 안수식(laying on of hands for blessing of missionary)이 있었습니다. 감독을 통해 안수를 받으면서 주님의 기쁨부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더욱 주님이 주신 선교사명을 온 몸으로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사역

5) 지도력 개발 -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 단기선교사역들을 실시할 수 없지만, 줌을 통해 선교사들이 섬기는 선교현지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며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난세의 마지막 선교적 대안: 전략적 기도”라는 주제로, 10/12은 뉴저지 실버 선교 훈련생들에게, 10/23은 도미니카에 흠어진 아이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미비하여, 리빙스톤 선교센터에 모인 리더 목회자들 10여명을 중심으로 10/23 9-12까지 시험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보다 적극적인 사역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6) 1.1.1 부흥 기도 운동 - 오래동안 맨하탄에서 전도운동을 이끌던 International City Mission(김호성목사)과 더불어 미국 재부흥운동 사역을 해왔는데, 코비드19으로 인한 111 부흥기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흠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난세,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난국은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동역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해 움츠러든 주의 백성들, 곧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낙심하고 소외된 7000의 믿음의 용사들을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 끝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에 전례를 찾기 힘든 Covid 19 Pandemic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헤쳐 나온지 근 일 년이 되어가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는 선교현장 피지에 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언제 국경이 언제 열릴 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님이 아시겠지요. 다만 안식을 먼저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선교현장의 바쁜 일에 끌려 다니기전에, 먼저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학생들과 나눌 과정을 개발하고 정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 기도"가 최선의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기에 111 기도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집중할 제자 삼는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지는 인구 100만이 약간 밑도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1970년 영국에서 독립 이후, 피지는 주변 16개 태평양 섬 포럼의 사무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최고 지역기구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지교회는 인근의 통가, 사모아, 베이커,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군도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복음의 전령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피지의 신학교에는 그곳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또 그곳으로 나가서 섬기는 피지의 전도자들도 많습니다.

선교는 예수의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제자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런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던 것처럼 저도 피지에서 '자신들이 몸담은 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의 제자"를 삼는 복된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여러분의 교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풍성한 가운데서

선교하는 것보다 의미있는 일은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적은 액수라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제자를 또 세워 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지 선교사 이성일 목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ungillee@umcmmission.org, 973-356-9331, 성도들의 선교기초과정을 줌으로 섬겨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Venmo- Sung Il Lee @Sungil-Lee_1;

연합감리교회 Sung il Lee's Advance # 3022596, Country Fiji, <https://advance.umcmmission.org/p-2013-lee-sung-ii.aspx>를 클릭하시고 직접 서식을 작성하시면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Subject: My Call to Mission

Have I ever shared with you why I became a missionary?

My call to mission began with my parents' conviction that God has called me to be God's servant and was advanced by an encounter with a missionary from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a young boy. My parents' words and this encounter with the missionary had an enormous impact on me and thus I entered seminary with the hopes of becoming a pastor and missionary myself.



During my second year of seminary education, I was exposed to religious pluralism which challenged the foundations of my faith. I almost lost sight of why I had come to seminary and became very discouraged. It was during this struggle that I encountered the One who called me by my name. He was Jesus. This spiritual encounter with Jesus led me to confess that Jesus was my Lord and Savior and to commit my life to Christ.

Since my ministry in the field began soon after graduating seminary, the Lord has trained me with his diversified discipleship trainings. In my first three years of rural ministry, God helped me to see the preciousness of one soul. For the next six years as a military chaplain, God made me learned the importance of making disciples to work with in ord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ng soldiers. There I was able to learn how to effectively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to see what God was doing through the works of these disciples. Many soldiers heard and accepted the life-saving

gospel, were baptized, and were transformed. Focusing on training pastors and lay leaders in the Philippines for five years, God made me observe the amazing work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to transform people through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prayer.

After course work was done, I tried to return to the mission field again in order to keep the promise with a sponsoring church, with God and with myself, but it was turned down. While serving at the immigrant Korean churches, I felt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land of blessing but at the same time it became the comfort zone to me. Many sufferings in recent years of my ministry made me not only experience the gospel of 'my cross', but also awaken me to know God's time to return the mission field. In the United States, God taught me how to serve people not with the mind of the arrogant spirit of the crusade, but of the humble heart of the disciple carrying his own cross.

Why does God call me again to the mission? The 24 years in America made me confess that it was a time God remold me as a disciple of Jesus who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am excited to continue this journey of grace that I have been invited to walk in Fiji. I believe that engaging in mission is not about teaching or exercising authority over others, but about becoming and making disciples who follow Jesus and his lived examples of serving and caring and empowering others.

Have you ever considered becoming a missionary? Not everyone is called, but we can share the responsibility of sharing the Gospel wherever we live.

You can join me in mission when you pray and [give to me](#). Please renew your support or make a second gift today if you are able.

Let's get to work
Sung il Lee, a Fiji missionary

[Click here to give online today](#). To give by check, make it out to Advance GCFA, put my Advance Number # 3022596 in the memo line, and send it to: Advance GCFA, P.O. Box 9068, New York, NY 10087

주제: 나의 선교 소명

제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저의 선교소명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부모님의 확신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어릴 적에 제 고향교회를 찾아온 미국 선교사를 만나면서 발전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선교사와의 만남은 제게 놀라운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로 제 소망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더 이상 신학교를 계속 다닐 이유를 상실하고 깊이 괴로워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만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고백했고 제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이래, 주님은 아주 다양한 제자훈련으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처음 시골목회 3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6년간의 군목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함께 증거할 제자를 삼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군선교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며, 이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했으며,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5년 동안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과 능력을 지켜 보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코스 워크를 마치고 제 모교회와 하나님과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교회를 섬기는 동안, 미국은 제게 축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안전지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역을 통해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 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겸손한 심령으로 섬겨야 함을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선교로 부르시는가? 미국에서 24년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충만한 제자로 다시 빚으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피지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부르사 은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일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힘을 주신 주님의 삶의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선교사가 될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는 곳에서 복음을 나눌 책임을 우리 모두는 나누어 져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저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해에도 기도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자 삼는 귀한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sung il lee, A Fiji missionary

이 곳을 클릭하여 오늘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로 하실 때는, 메모란에 저의 Advance Number # 3022596를 기입하신 후에, 다음의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Advance GCFA, P.O. Box 9068, New York, NY 10087.

미주지역과 해외의 온라인 광야의 소리 독자

〈광야의 소리〉는 격월로 발행하면서 매호마다 약 250부를 인쇄하여 알버커키지 한인들을 위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추가로 로스 알라모스, 산타페, 클로비스, 라스크루시스 한인교회에도 보내드리고 있다. 잡지 배포는 알버커키에 있는 세 한국식품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더 많은 독자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소리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서 웹사이트 voice.kumcabq.com에 올려 놓고 있다. 인쇄된 잡지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모바일폰이나 컴퓨터, 태블릿등으로 온라인 잡지를 쉽게 접근 할 수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중에서 젊은 층을 제외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교민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온라인으로 올리는 〈광야의 소리〉가 얼마나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편집인으로서는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었다.

이러던중에 최근에 웹사이트 방문자 통계를 볼수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광야의 소리〉 온라인 버전을 방문한 사람의 지리적 위치, 방문 횟수등의 통계를 기록해주어서 궁금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 독자 여러분에게도 통계상황을 알려 드릴려고 한다.

〈광야의 소리〉 온라인 버전을 찾아온 지난 3개월의 방문자는 거의 대부분 9/10월호를 읽고 가신것으로 보이는데 총 방문자는 237명으로 나와있다. 그중에서 101명이 뉴멕시코에 주소

를 둔 방문자이고 136명이 타주 또는 외국에 계신 방문자였다. 뉴멕시코 방문자의 대다수는 리오란초와 알버커키이지만 산타페, 로스 알라모스에 이어 로스루나스, 그랜트, 로스웰에도 독자가 계신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본으로 배포되는 수자가 250 내외임으로 온라인 독자 101명을 합치면 뉴멕시코 주민으로서의 독자수를 350명 이상으로 추산할수있을 것이다. 인쇄본이나 온라인 버전도 부부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임으로 실제의 독자수는 약 450~500명으로 추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뉴멕시코 주민이 아닌 방문자는 모두 136명인데 이를 미국내와 해외로 분리해 보면 국내가 98명 해외가 38명이기. 해외방문자 중에서 한국에서의 방문자는 24명이고 한국이 아닌 해외 방문자는 중국, 일본을 포함 7 개국이였다. 국내에서 방문자가 많은 주는 뉴저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이며 모두 18개의 주에서 방문한것을 합하여 98명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타주와 해외 방문자는 뉴멕시코에 거주했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뉴멕시코에서 유학을 했거나 직장을 갖고 살다가 귀국 또는 이주하셨음에도 뉴멕시코를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신 까닭에 〈광야의 소리〉를 찾아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욱 더 애독해 주실것을 바라며 좋은 글도 집필하셔서 원고를 보내주실것을 해외 또는 타주에 계신 독자 여러분과 이곳 교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온라인 버전 주소: voice.kumcabq.com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3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교회 Church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 리커스토어 Liquors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부동산 Realtors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세탁소 Dry Cleane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주택용자 Loan Officer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 중재서비스 -----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치과 Dental Clinic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호텔 Hotel -----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11/12월호

발행일 : 2020.11.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총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카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